

종오리 사양관리 요령



일반사양관리

1. 종압입추준비

오리는 단일 일령 농장이 이상적이지만 적절한 관리를 해주는 경우 다일령 농장도 우수한 성적을 얻을 수 있다. 오리들은 성장정도에 따라서 다른 종압사에서 사육하거나 또는 같은 계사에서 영구히 사육할 수도 있다.

종압사육을 위한 시설환경은 안전하고 쾌적해야 한다.

고려해야할 사항

■ 농장배치

종압은 다른 농장과 가능하면 떨어져 있어야 질병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다. 최소한 3km거리는 유지되어야 한다 (그림.1)

각 농장이 단일 일령오리인 경우 최적의 격리가 이루어질 수 있고 바람직한 것이지만 적절한 관리를 해주는 경우 다일령 농장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얻을 수 있다. 또한, 종압관리는 육추, 육성, 산란 등의 성장 단계에 따라서 다른 종압사에서 이루어 질 수 있고(그림.2)과 같은 종압사에서 도태시까지 사육될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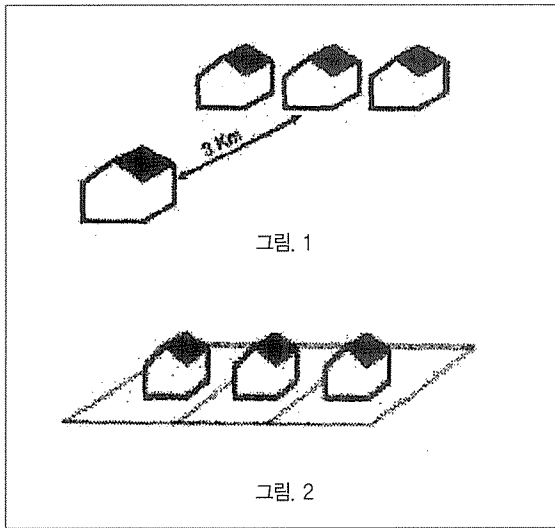


그림. 1

그림. 2

■사육의 적합성

오리들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하고 천적, 이상기후, 오염 등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어야 한다(그림.3). 입식되는 수수에 적합한 바닥 면적, 환기, 조절가능한 점등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종압사 건축시 소요된 잔여 자재 등을 깨끗이 치우고 청소, 소독해주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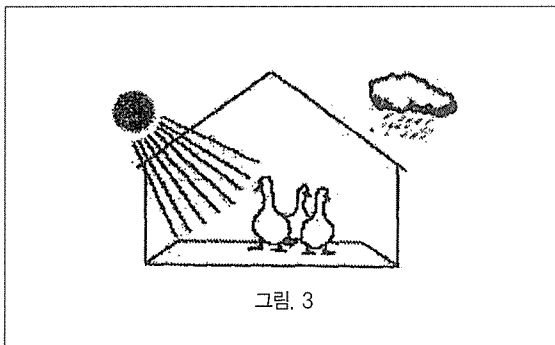


그림. 3

■안전한 환경

고온 상황일 경우, 오리가 편안한 온도 내에 있도록 하기 위해 특별한 종압사 건축 및 관리가 필요하다.

자세한 사항은 기술부의 별도 책(Technical Desk)의 별도 책자에 나와 있다.

■물공급과 바닥조건

오리는 물을 좋아하는 가금류이기 때문에 원활한 물 공급관리를 위해 바닥 상태를 잘 유지해 주어야 한다. 육추기간 이후에는 급수기를 슬랫위에 놓아주어야 하는데 이것을 급수섬이라 한다(그림 4). 이것은 오리에 의해 지속적으로 물이 튀기는 것을 막기보다는 급수기로부터 물의 낭비를 줄이도록 해준다. 또한, 급수기 접근 부분의 수(양 조절)를 적게 제한을 두어 오리들이 물을 먹고 나올 때 젖게 되는 바닥의 면적을 최소화 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급수기 부근에 단단한 재질의 것으로 낮게 울타리를 만들어 물이 튀겨서 깔짚지역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다(그림5).

주의 : PS 종압사의 경우 슬랫이나 철망 지역은 전체 바닥면적의 10%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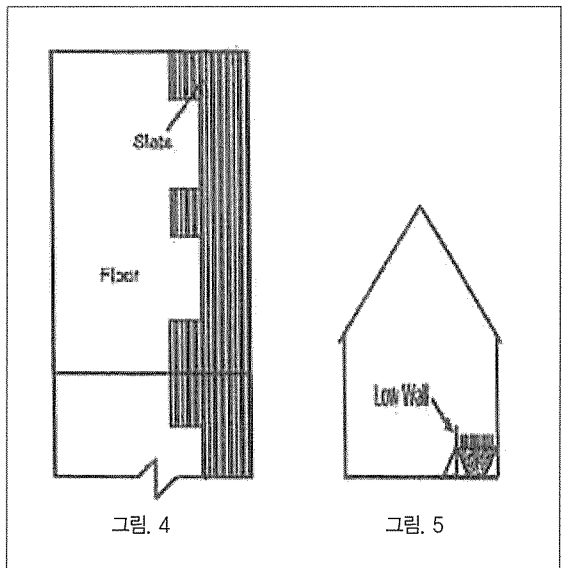


그림. 4

그림. 5

■ 설비유지관리

설비는 주기적으로 체크하고 유지보수 해서 특히 전기공급이나 물 공급이 중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주기적으로 급수성이나 만곡부 부분 등을 점검해서 날카로운 끝으로 인해 오리들이 움직일 때 상처를 입기 전에 보수해야 한다.

2. 관리자 기본

건강한 종오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관리자들이 상당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모든 관리자들은 아주 작은 부분들이라도 실천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농장장은 종오리와 시설에 대해 주기적인 점검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유지해야 하며 관리자들이 개별적인 오리들에 대해 특별한 책임을 가지도록 한다.

■ 1일령 오리 입추

체리벨리에서는 암, 수를 다른 박스로 분리하여 농장에 공급한다. 입추시 암컷들은 암컷들만 입추시키고 수컷들은 약간의 암컷을 같이 입추시킨다. 본 매뉴얼의 "암, 수 혼사비율" 부분에서 자세히 설명한다.

■ 건강한 육추

병아리들이 이동시 받았던 스트레스로부터 빨리 회복되도록 육추지역에 추가적으로 급수를 해주어야 한다.(입추 후 처음 4시간은 사료를 주지 않는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병아리를 입추시 보조 급이기를 이용해 약 2mm 높이로 물을 채워 육추기 아래에 놓아주는 것이다. 이후 자주 물을 공급하여 물높이를 12mm가 되도록 유지한다. 이렇게 4시간 경과 후 이제 물이 비어있는 보조 급이기에 는 사료를 채워주기 시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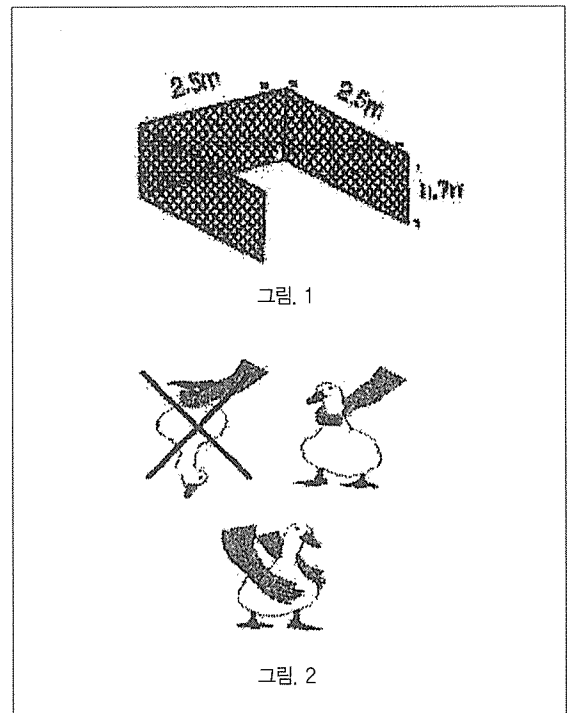
오리잡기 및 취급

주기적으로 체중측정 및 선별을 위해 오리를 잡을 때 (그림1)과 같은 포획망을 이용한다. 철망과 목재를 이용하여 만든 칸막이, 길이 2.5미터, 높이 0.7미터의 와이어 매쉬를 대어서 만들고 오리들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면서 유연한 재질이어야 한다.

병아리를 한번에 많이 잡으려면 목부분을 잡고, 한마리씩 잡으려면 몸통 전체를 잡는다. 어린 오리나 육성오리는 목 부분을 잡아 올리고, 들고 있을 때는 날개를 잡는다. 완전히 성숙한 오리는 몸통 부분을 받치면서 날개를 잡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이 된다(그림2).

주의 : 다리 부분을 들어올리거나 잡아서 는 안 된다. 오리다리는 매우 쉽게 손상될 수 있다.

육성시기에는 언제나 사료 급이하기 전에 오리 잡기(취급)을 하여야 한다.





날씨가 더운 시기에 오리를 잡거나 이용하는 것은 하루 중 가장 시원한 때에 해야 한다.

■ 컨트롤 관리

표준에 맞게 사양관리를 하고 종압설비 상태를 양호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관리 시스템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시스템은 매주 정기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표준 점검 절차에 기본을 두어야 한다.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은 다음주 체크에 들어가기 전에 액션을 취해야 한다.

3. 위생과 질병예방

오리는 매우 건강한 축종이지만 어린 시기에는(처음 5주령기) 질병에 감염되기 쉽다. 따라서 이 시기에 특별한 관리노력을 기울여야 나머지 사육기간 동안에 질병이 없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 종압사 청소

오리가 농장에 입추되기 최소 4주 전에는 압사 및 사육기구 등을 철저히 세척하고 소독 및 필요한 경우 훈증소독 처리해야 한다. 압사 청소 방법은 기술부 책(Technical Desk)에 잘 나타나 있다. 압사 및 사육 설비는 오리가 입추되기 전에 충분히 건조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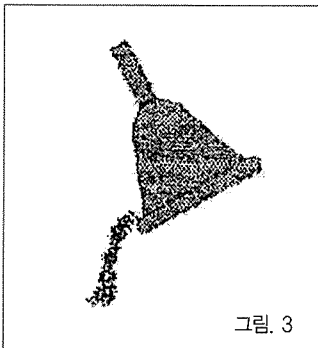


그림. 3

주의 : 급수 라인이나 급수, 급이기에 잔여 소독액이 남아서 오리들이 독성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철저히 씻어내야 한다(그림3).

■ 격리

꼭 필요한 사람만 압사에 들어가야 하며 방문자는 방문전에 다른 가금류 농장을 방문해서는 안 된다.

방문시에는 반드시 위생복을 갈아 입어야 한다. 어린오리를 관리하는 사람은 집 또는 작업장에서 다른 가금류, 특히 오리와 절대 접촉해서는 안 된다.

■ 깔짚

오리가 건조한 환경에서 사육될 수 있도록 가능하면 매일 또는 주기적으로 소량의 깨끗하고 건조하며 부서지기 쉽고 무른 형태의 깔짚을 바닥에 뿌려주어야 한다. 오리가 물은 좋아하지만 젖은 환경에서 지내는 것은 좋아하지 않으며, 젖은 환경에 두게 되면 건강상태가 나빠진다.



■ 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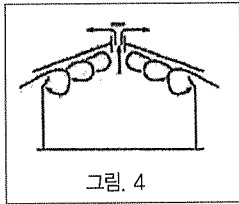


그림 4

환기는 오리 주위의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다(그림 4). 환기를 적절하게 해주어야 암사 내의 먼지, 불쾌한 공기, 깔짚의 수분을

외부로 배출시킬 수 있다. 환기설비 가동을 주기적으로 조절해 주어 암사 내부를 신선하고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주의 : 암모니아 수준은 항상 10ppm 이하로 유지되어야 한다.

소형 가스감지기를 이용해 측정할 수 있다. 상세한 사항은 기술부 책(Technical Desk) 참조.

백신과 치료

■ 백신

오리는 주로 3가지 질병에 영향을 받는데 이들은 모두 백신에 의해 효과적으로 예방된다(그림 5).

- *Duck Viral Hepatitis(DVH)
- *Duck Viral Enteritis(DVE)
- *Pasteure la Multocida(콜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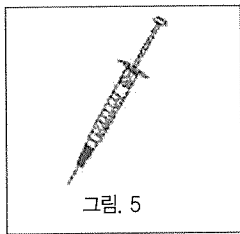


그림 5

오리가 입추되는 지역에 상기 질병이 문제가 되는 경우 적정 백신 제조업체가 제조한 백신을 수의사에 지침에 따라 적용한다.

백신 공급자와 백신프로그램에 대한 추가적인 정

보는 "Technical Desk" 참조

참조 : 오리 바이러스성 간염은 매우 어린주령에 발병한다(0~5주령). 따라서 백신은 오리 입추 전에 미리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체리벨리 종오리는 DVH가 없는 원종오리에서 생산된 것이어서 자연 면역성이 없으므로, DVH

가 문제가 되는 지역에 입추하는 경우는 해당 백신을 실시해야 한다.

백신처리 후 8~12시간동안 오리들을 박스 안에 서나, 깨끗한 공간에 두어서 간염에 대한 면역 형성을 위해 8~12시간 동안 두어야 한다.

■ 치료

치료의 경우는 오리들에게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경우에만 실시한다. 콕시듐이나 내부기생충은 정상적으로는 오리에게 영향을 주지 못하므로 정기적인 투약이나 치료는 불필요하다(그림 1).

비타민/미네랄/전해질 제제 등은 오리를 다루었거나 이동하여 스트레스 상태에 있는 경우 투여하면 효과적이다(그림 2). 정상적인 관리 상황에서 주기적으로 투여할 필요는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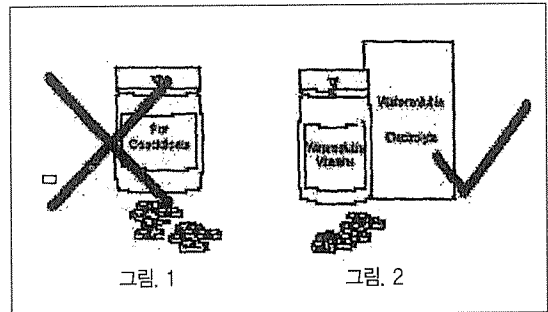


그림 1

그림 2

■ 일반관리

*종암사 내부와 외부 주위를 깨끗하게 유지한다.

*효과적인 해충구제 프로그램을 적용한다.

*암사에 야생조류가 접근하지 못하게 한다.

*좋은 품질의 사료와 깔짚을 이용한다.

*차량이나 인원 장비 진입시 바퀴 소독조, 신발 소독조, 샤워어 및 방역복 착용, 소독약 살포 등 위생절차를 준수한다.

*경고문구나 표말을 세워 출입자에게 경각심을 준다.